

**한국 전통공간디자인 텍스트의 지시작용 해석에 관한 연구

- 컨텍스트의 구조적 유비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signation in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Text

- Focusing on structural homology of Space Context -

박경애* / Park, Kyung-Ae

Abstract

This study is interested in how philological interpretation of a space text were patterned so as to give the text structural cohesion. A similar philological motivation incorporates some of the notions of generative grammar. Interpretation is the process of recovering the cultural meanings expressed in discourse by analysing the linguistic structures in the light of their interactional and wider social contexts.

Viewed in this light,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illustrated as follows:

At first, this research contains basic concepts of signification of text and context, and theories of spacial text and context of typological structure in terms of Ricoeur's structural Hermeneutics.

Secondly, it concretize a logic that traditional space context is inserted in organized attribute like emotion, spirit, nature as character of contemporary space text through typological structure.

Finally, from aspect of designation theory among interpretive semantics, it shows that korean contemporary space design is incorporated with typological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palace spacial context homologically through the case study of I-Hotel space design.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suggest that positivistic interpretation methodology by designation of text is logical thinking of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키워드 : 한국전통공간디자인, 텍스트, 컨텍스트, 텍스트 해석학, 지시작용, 자기화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Text, Context, Text Hermeneutics, Designation, Appropri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공간디자인은 텍스트를 조직화하는 것으로서 해석학적 관점에서 디자이너와 사용자와의 관계는 텍스트의 생산과 텍스트를 해독하는 관계로서 동등한 관계와 위치를 갖는다. 해석학에서 언어는 특정한 사물을 지시(designation 또는 reference)함으로써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수단이다.

최초에 텍스트는 언어의 내적 관계 또는 구조인 어의(sense)만 가지고 있으나 해독과정에서 그것은 읽기 주체의 담화의 실현인 하나의 의미(meaning)를 지니게 된다. 즉 어의에 의해 기

호학적 체계(semiological dimension)만을 가졌던 텍스트는 그 의미의 힘에 의해 의미론적 차원(semantic dimension)을 갖게 된다.¹⁾

해석학의 과업은 텍스트의 '사물(matter)'을 알아내는 것이며, 명제에서 지시가 어의에 속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사물은 텍스트의 구조에 속해 있다. 해석학은 텍스트 밑에 가려진 심리적 의도를 탐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고, 텍스트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내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²⁾

해석학의 과제는 텍스트 속에서 그 작품의 구조화를 구축하는 내적인 역동성과 그러한 구조화된 작품 속에 내재하는 사물

* 정회원,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디자인학박사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50-G00003)

1) Paul Ricoeur, From Text to Action. translated by Kathleen Blamey and John B. Thomps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1991, p.119

2) Ibid., pp.35-36

의 세계를 외부로 투영하는 작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역동성과 외적 투영이라는 텍스트의 이중 작업을 탐구하는 것이 텍스트 해석학의 핵심이다.

해석학의 전제는 객관성에 의해 매개된 주체와 대상이다. 객관성에 의해 주체의 보다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리코르(Paul Ricoeur)³⁾는 自己化(appropriation)의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에 의해 본 연구는 전통공간해석의 접근방식으로서 텍스트 이론의 도입을 리코르의 텍스트 해석학 안에서 컨텍스트의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즉 텍스트의 지시작용에 관한 해석학적 관점이 전통공간의 의미체계를 분석하고 시각정체성을 규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제안한 구조해석학적 접근방식이 공간의 가치체계에 관한 성찰을 심화시키는 디자인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그 출발점을 갖는다.

디자인을 텍스트처럼 글자로서 언어화된 것으로 해석을 요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때 디자인 분야의 문화인류학과 해석학의 연결은 가능하다. 본 연구는 리코르의 철학적 해석학의 경우처럼 공간디자인을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빌어 해석할 수 있는 유사 텍스트(quasi-text)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텍스트의 지시작용에 의한 해석학적 접근방식은 전통공간 속에 담긴 공간의 효과, 구조배열의 유형적 관계를 외연적인 드러남에서 보고 해석하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전통공간의 정신적 개념과 물리적 구성을 유비적으로 지시하여 현대의 전통공간디자인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논리임을 I호텔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리코르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은 텍스트를 그 텍스트의 컨텍스트 내에 국한시키는 구조주의적 접근과 함께, 지시적 상관자를 가짐으로써 텍스트의 지시작용을 드러내는 것이 해석의 과제라고 본다. 리코르는 이 지시적 상관자가 다름 아닌 현상학적 생활세계라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해석학의 전제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외시하는 기호가 아니라 어떤 삶이나 상황을 담지하고 있는 상징인 생활세계이며, 해석이란 객관적으로 어떤 텍스트의 상관자인 그 세계를 다시 현존시키는 데에 있다.

한편 들뢰즈 역시 기호의 차원이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며 삶에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순수 '사건'과 결부하여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의미는 이 세계가 운동할 때 사건과 더불어 발생하며, 바로 그 사건의 발생을 통해 문화의 의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형태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시간 속에서 생성되는 사건인 것이다. 이는 공간을 매순간 일어나는 사건으

로 재구성하는 것이 공간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생활세계'를 '사건'의 개념과 연관하여 전통공간의 '구조'를 사유하되 '사건'을 포함하여 의미생성을 사유하는 길을 모색하는 디자인방법론의 제시로서, 전통공간과 컨텍스트, 디자인언어로서의 텍스트라는 관계의 기본 틀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그 방법에 있어 전통공간의 현대화에 관한 이론적 영역으로 해석학과 구조주의의 탐구를 양립·조화시킬 수 있도록 리코르의 구조주의적 텍스트이론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저자-텍스트-독자의 관계에서 의미의 구조와 지시작용에 의한 자기화 과정이 컨텍스트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분석의 기준틀이 되는 것으로, 이에 의해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주의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의미작용, 공간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유형학적 구조, 그리고 공간텍스트의 지시작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텍스트의 지시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전통공간 컨텍스트의 유형학적 구조를 장소성, 역사성, 토착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디자인 차원에 적용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고, 전통공간컨텍스트의 情, 氣, 質 등 이미 조직되어 있는 효과들의 장에 디자인 텍스트를 편입시키는 논리를 구체화한다.

셋째, I호텔 공간디자인⁴⁾을 사례로 서울 궁궐의 공간적 컨텍스트와 디자인 텍스트의 구조를 상징적 생활세계의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공간구조적 상응관계라는 측면에서 유비⁵⁾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텍스트 해석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한국전통의 공간텍스트를 현대의 디자인 텍스트로 재조직화하는 접근논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리코르는 현상학, 구조주의, 기호학, 분석철학, 심층심리학, 철학적 해석학을 포괄하여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통합하고 있다. 리코르의 텍스트 해석학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호언어학파는 달리 화자(speaker), 청자(listener), 의미(meaning), 지시작용(reference)이다. 텍스트의 이해에서는 화자가 저자가 되고 의미와 지시작용은 텍스트의 다중적 의미관계가 되며, 청자는 독자가 된다. 리코르는 이러한 해석에 객관성 및 규범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분석의 방법을 보충하여 종합적 텍스트 해석학을 제시했다. Hugh J. Silverman, *Gadamer and Hermeneutics*, Routledge, New York, 1991, pp.70-72참조

4) I호텔은 1989년에 개관한 호텔로서, 개보수에 의해 현재 내부시설의 변화가 있으나 본 연구는 토탈 설계개념이 적용된 최초의 디자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5) 類比는 철학적으로 사물 상호 간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동등성 또는 동일성을 의미한다. 논리학적으로 유비는 유추와 유사한 의미로 간주되기도 하나, 유추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지식체계를 전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유비는 양측이 그 자체로서 동등한 상동성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공간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이론적 접근

2.1.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공간텍스트와 컨텍스트

20세기 새로운 언어학과 문화이론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소쉬르(F. de Saussure)의 언어학은 언어가 곧 그 대상인 사물을 지칭한다는 전통적인 언어관으로부터 “언어는 자의적인 동시에 관습적이다”라는 구조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구조주의적 인식이론에서는 어떤 하나의 事象이 그 자체 고유한 독립적 성격과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事象과의 관계체계’, ‘위상의 체계’, ‘위치의 설정’에서만 그 의미를 지닌다. 인식론적으로 ‘場’, ‘밭’, ‘구조’, ‘체계’ 등이 ‘의미의 개별요소’보다 앞서 존재한다. 의미의 표상은 체계 없이 구성되어질 수 없다.⁶⁾ 구조주의의 철학성은 인간이 의미의 운반자나 창조자, 또는 사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의미는 ‘컨텍스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 컨텍스트는 내적 의존성을 지닌 자치적 전체인 ‘구조’와 ‘체계’의 다른 법칙이라는 것이다.⁷⁾

우리의 정신은 사물을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인식하는가에 따라 세계와 달리 관계 맺는다. 한 사회의 세계관이 집단의 이념과 지배적 준거로 작용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문화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또 이는 기호화와 형상화, 텍스트 창조에도 작용한다. 구조주의적 사유양식에 있어서 잠재성이란 이러한 컨텍스트의 구조적 체계 내에서 상징적 요소들이 어떤 시공간적 조건 하에서 현실화되는 가능성이다.

리코르에 따르면 인간의 문화적인 상징행위는 시간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갖는다. 문화가 가지는 행위의 시간은 늘 어떤 상징적인 체계 속에서 구조화되고 표현된다. 리코르는 이 시간을 바로 행위세계 또는 행위지시라 했다.⁸⁾ 이와 같이 해석학에 있어 언어의 구조적 체계는 공식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서도 규정된다. 이러한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된 지시적 의미는 텍스트와 주체에 인식의 동일성을 부여하는 의미의 이전을 뜻한다. 텍스트의 다재로움은 이와 같은 역사적 컨텍스트에 의해 보전된다. 그래서 텍스트는 마치 생명체처럼 역사의 컨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획득해 나아가며 동시에 과거의 의미를 현재에 이전한다.

피아제(J. Piaget)는 구조주의를 3가지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 첫째는 전체성(Wholeness)으로, 구성요소는 그 구조 자체의 고유한 내적 법칙에 따라 구성 요소의 개별적 특성 이상의 전체적 특성을 구조에 부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변형(Transformation)으로서 구조는 일단 변환되면 변환된 구조 자신이 다시 구조화되려는 내재성을 갖는다는 구조의 동태성이다. 그리고 셋째는 구조는 다른 계와 상이한 구조의 고유 법칙을 유지하면서 구조의 가역적 제 요소들 가운데서 적합한 것만 선

택해서 결합하는 자율통제(Self-Regulation) 기능이다.⁹⁾

이러한 구조주의의 특성과 관련하여 구조주의 인류학적 관점은 문화적 컨텍스트와 형태와의 관계를, 유형학은 하나의 건축 현상 내에서 컨텍스트와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서로 관계를 갖는다.

구조주의 제 개념과의 연결된 건축공간에서의 유형학에 관하여 콜쿠호운(A. Colquhoun)은 유형을 그 내적구조의 특성과 본질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태도로서, 그 사회의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공동기억의 산물이며 집단적 의식의 표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과거 건축과의 컨텍스트와 형태적 의미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로 작용한다고 보았다.¹⁰⁾

공간언어가 생성하는 이러한 구조적 의미는 공통적 가시성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도상적 성격으로 표명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 유형은 기존의 컨텍스트에서 추출되는 하나의 내적질로서 ‘역사와의 연계성’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의 연결체이다.

2.2. 공간텍스트의 지시작용

역사는 철학에게 전통과 해석이라는 두 가지의 사고 영역을 제공해 준다. 전통은 해석을 전달하고 침전시키고, 또 해석은 전통을 유지케 하고 새롭게 한다.¹¹⁾ 텍스트는 하나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의미를 지니는 언어적 표현이고 해석은 텍스트들을 해독하고자 하는 이해의 작업이다.

텍스트의 지시작용은 세계를 저자가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표상이 지시하는 대상의 의미를 드러난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다. 의도를 직접 반영한 텍스트로서 저자의 심리적·시적 변용이 없기 때문에 실증주의적으로 텍스트와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하면 된다.

이러한 지시이론에 있어서 텍스트라는 것은 결코 자체 충족적인 차원, 닫힌 차원에 갇힌 존재가 아닌 그 바깥의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언어와 사물은 동형

6)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1989, p.491

7) Ibid., p.492참조

8) Paul Ricoeur, Temps et récit I, p.122를 인용한 한국해석학회, 문화와 해석학, 철학과 현실사, 2000, pp.89-90참조

9) 장 피아제, 구조주의 이론, 김태수 역, 인간사랑, 1990, pp.22-30

10) 건축형태와 역사적 맥락과의 연계성의 개념은 창조된 작품이 고대의 공인된 모델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형은 단순한 모방과 재생으로서의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사회적 관례와 역사, 전통 속에 내재한 대상의 의미를 발현시키는 연상과 기억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쿠호운은 언어가 복잡한 재현체계이듯, 건축과 같은 조형적인 체계도 재현체계의 틀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현체계로서의 유형이 변형과 생성 과정을 통해서 창조된 건축이미지는 사회적, 인습적 가치 즉, 문화적 교환가치를 내포함으로써 그에 관련된 연상, 이미지, 기억에 의해 풍부한 의미를 제공해준다. 길성호, 현대건축사교론, 미건사, 1998, pp.96-101

11) 김형효, op. cit., p.503참조

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언어와 사물은 다른 존재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상응한다는 것, 구조적으로 유비적이라는 것이다. 즉 사물(대상)과 기호(텍스트) 체계와 우리 관념의 체계가 寫像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지시이론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표상은 세계와 기호체계와 관념체계가 서로 거울을 형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표상행위는 주체의 동일성과 대상의 동일성 및 주객을 둘러싸고 있는 장의 동일성을 전제한다.¹²⁾

여기에서 의미란 반드시 대상과 주체가 맞물려 있는 차원, 즉 경험의 차원에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드러나는 표상들의 의미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구조적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내재적 요소들의 위치이다. 이 구조적 공간 내 위치들의 관계망에 의해 특정 시공간적 조건 하에서 하나의 표상이 현실화될 때만이 그 표상은 의미를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작용의 측면에서는 컨텍스트와의 관계로부터 텍스트는 어떤 의미들은 내포할 수 있고 어떤 의미들은 내포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 즉 의미의 가능성과 해석의 한계라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제기한다. 사실 컨텍스트 자체도 이미 텍스트화되어 있는 세계로서, 그 의미는 특정 상황에 따라 해석되며 특정 상황을 인식하는 텍스트 저자와 독자에 의해 또다시 재해석되기도 한다. 이 때 읽는 주체는 구조적 사유를 통하여 지시대상과의 유사성이나 인접성을 연상해내고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비유된 텍스트 기호는 관계와 차이를 통하여 세계의 숨겨진 부분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해석은 적극적인 의지의 행사이며 실천이다. 공간 언어와 같은 유사언어의 誘因 역시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 older grammar)¹³⁾의 관념을 내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해석은 상호적이고 사회적인 컨텍스트의 관점에서 언어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담론에 표현되는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는(재생하는) 과정이다.¹⁴⁾

공간은 해석 앞에서 완결된 의미구조가 아닌 사건으로 펼쳐진다. 이는 “공간화된(spatialized) 공간에서 공간화하는(spatializing) 공간으로 넘어가는 지각된 바의 세계(world as perceived)¹⁵⁾”로서, 이때 공간은 획득한 의미의 잔재가 아닌 독자적인 현실논리가 침투함으로써 인식·경험되는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즉 공간은 주체와 현장을 연루시킨 장소로서, 컨텍스트에 의해 하나의 사건으로 지시되어 해석됨으로써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들의 개체를 이루는 단위는 구조에 의해서 상호 긴밀한 역동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작용에 의하여 개체와 전체는 각각 컨텍스트에 대한 흡인력을 분출시킨다. 이렇게 하여 텍스트는 공간에서 장소로 개념을 전이함으로써 자체적 의미를 생성한다.

3. 전통공간의 컨텍스트와 디자인텍스트

3.1. 전통공간 컨텍스트의 유형학적 구조

전통문화란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상징으로 구체화되는 의미의 유형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과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형태의 개념 체계이다. 이 때 상징이란 인간이 삶에 관한 지식과 삶에 대한 태도를 전달하고 유지하고 전개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미의 질서와 복합’이 축적된 텍스트의 집적이다.¹⁶⁾

라카프라(La Capra)는 텍스트를 “서로 영겨 있으면서도 때로 상충하는 여러 경향들이 긴장관계에 놓여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텍스트의 생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텍스트를 “장기적 전통과 특정시대가 교차하는 ‘장소’”로서 다양한 언어의 망상조직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¹⁷⁾ 이 때 텍스트는 공시적 약호가 아닌 전통의 컨텍스트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시된 의미효과를 창출하는 의미의 연속체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통공간디자인에 대한 컨텍스트의 도입은 역사와 문화의 탐구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형태질서의 표상을 제안함으로써 특정 건축-공간적 형태를 도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자체에 대한 은유적 대응에서부터 지역적이며 관습적인 색채·재료의 사용, 역사적 전통에 대응한 유추와 장소의 정신에 대한 기억 및 집단의 연상에 의한 이미지 적용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특히 장소의 정신과 집단의 연상을 이용한 방법은 역사적 주제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공간요소간의 기본원리를 찾아 기능 및 배치에 관한 원칙을 탐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간구성의 모델을 삼는 방법이다. 이것은 컨텍스트를 적용하여 지시의미를 획득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서울궁궐의 전통에 관한 컨텍스트의 인자를 물리적 지역성의 측면에서 장소성, 문화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역사성, 사회적 동질성의 측면에서 토착성이라는 세 가지 인자로 나누어 그 내용에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장소성은 ‘도시와 건축적 배경’으로, 역사성은 ‘문화와 상징’으로, 토착성은 ‘공간구성과 요소’로 다시 한 번 분절하고 서로 결합하여 전통 컨텍스트의 내재적 인자는 시각 이미지로 구체화될 수 있다.<표 1 설명 참조>

12)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pp.109-114

13)여기에서 생성문법이란 본 연구에서의 구조, 또는 체계와 같은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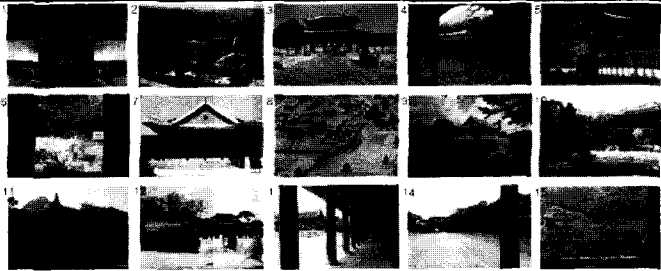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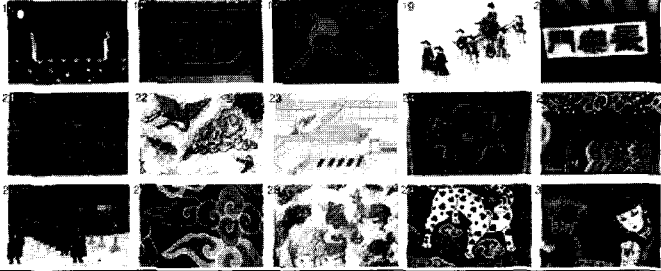

14)Michael Toolan, Language, text and context : essays in stylistics, Routledge, London, 1992, p.41

15)Merleau 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lated by Colin Smith, Routledge, London ; New York, 2003, p.284

16)한국해석학회, 문화와 해석학, 철학과 현실사, 2000, p.80참조

17)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2002, pp.243-244참조

<표 1> 서울궁궐의 전통 컨텍스트의 인자

컨텍스트	내재적 요소	잠재적 키워드	디자인 차원	시각이미지와 내용
장소성	그 장소만의 전통적 특징, 자연 환경적 요인, 역사적 특성에 의한 지역성	도시적 구조, 지역적 본질과 색채, 지역주의	공간작법의 구조적 특성	 <p>서울(궁궐)의 자연 및 계절의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건축환경의 어우러짐은 풍수지리, 음양오행 등 우주질서 속에서 서로 대응하며 보완하는 세계 내 존재로, 디자인에 무궁무진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도시와 건축적 배경'을 '장소성'으로 규정한다.</p>
역사성	역사적 상징의 인유, 유추	가치체계, 보편적 정신, 기록, 시각적 심상, 이미지, 연상, 기억	시나리오의 적용 스토리텔링	 <p>전통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엄격한 규율로 지켜진 상징화된 조형물, 세속적 세계에서 영속성을 부여하거나 상상적 세계에서 추출되어 구상적으로 형상화된 의식화된 수단들, 즉 실용성에 앞서 역사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적 유추물을 '문화와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성'으로 규정한다.</p>
토착성	한국전통공간 의 형태적 모티프	한국적 생활방식과 체험 한국적 공간조형의식, 한국적 아이덴티티, 민족성	공간요소의 자문화적 구성	 <p>궁궐, 사찰, 주거, 서원 등에서 나타나는 전통건축의 공통적인 요소와 속성들, 즉 목구조의 특성에 의한 건물요소들의 분절과 접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조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들, 가구 및 의장적 요소들, 이와 같은 '공간구성과 요소'를 '토착성'으로 규정한다.</p>

1.창덕궁 선정전 내부 2.창덕궁 3.경복궁 영제교와 근정문 4.창덕궁 승화루 월광문 5.경복궁 흥례문 6.경복궁 교태전 후원 7.창덕궁 회정당 8.동궐도 일부 9.경복궁 경회루 10.후원 부용지 11. 경복궁 향원지 12.창덕궁 낙선재 일곽 13.창경궁 명정전 행각 14. 창덕궁 진선문 내부 15.후원 부용정과 부용지 16.일월오악도 17. 창덕궁 선정전 어좌보개의 봉황문 18. 삼태극문 19.김중근, 대신 금관조복한 모양 20.창덕궁 낙선재 장락문 현판 21.운문 22.경복궁 자경전 담장 운문 23.동궐도 부분 24.경복궁 근정전 천정 중앙의 운룡문 25. 경복궁 강녕전 내부단청 26.경복궁 근정전의 품계석 27.세색운문 28. 경복궁 자경전 담장 십장생문 29.경복궁 영추문 흥예천정의 배호 30.박광생, '무속6' 부분, 박광생화집 31.경복궁 강녕전 주초석과 창호구조 32.경복궁 경회루 문합문 33.경복궁 자선당 34.연경당 사향대청 35.소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36.경복궁 자경전 출입문 37.경복궁 경회루 들기둥 38.경복궁 교태전 함홍각의 띠실장호와 아자살 장호 39. 경복궁 수정전의 대청과 온돌방 40. 연경당 온담 장식문양 41.이충장, 광주민속박물관소장 42. 탁자, 덕수궁 궁중유물박물관소장 43.창경궁 낙선재 내부 44.후원 영화당 내부 45.경복궁 동행각 교창

(그림 출처: 신영훈, 한국의 고궁, 한옥문화, 2005, 이덕수, 신궁궐기행, 대원사, 2004, 이강근, 한국의 궁궐, 대원사, 1999, ㈜서울포럼, 아름다운 서울, 서울포럼, 1991, 국립민속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덕수궁 궁중유물박물관)

3.2. 텍스트의 지시작용에 의한 전통공간디자인 해석

훌륭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 기준이 창조한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은 호텔의 궁극적인 과제이다.¹⁸⁾ 현대산업으로서 호텔산업은 세계의 지구촌화와 함께 국가 및 지역문화의 산업화와 국제 문화교류 등 시대적 흐름과 닿아있다. 그곳은 집과 같은 거주성과 문화적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져 있는 공간으로, 정교하게 계획된 비일상성으로 고객을 감탄시켜야 하는 무형적 가치창조의 공간이다. 따라서 오늘날 흡인력이 강한 창의적인 호텔을 만들려는 목표는 호텔경영자들에게 최대의 도전이 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호텔은 환경과 분위기를 판매하고 고객의 지속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는 구매상의 특징으로 감정적 유대가 개입되므로 심리적 관련성을 이미지로 창조하려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속성을 갖는다.²⁰⁾ 호텔의 공간 이미지는 고객으로 하여금 호텔의 이미지를 인식,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서 그 자체가 호텔 이미지를 형성,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공간이미지 형성은 호텔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호텔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경쟁력 있는 이미지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전략이다. 호텔의 특성상 그것이 속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객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전통성과 컨텍스트라는 측면은 디자인에 독창성을 부여하는 차별화전략이 될 수 있다.

호텔은 그 건물과 도시에 낯선 방문객을 전제로 한다.²¹⁾ 따라서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I호텔은 그 기본계획에 있어서 서울 궁궐의 컨텍스트를 조형텍스트





















18)박진배, 호텔경영과 디자인 펠레트, 도서출판국제, 2003, p.3

19)권영걸, 호텔의 예술, 성공의 디자인, Ibid., pp.8-9참조

20)임영찬, 호텔경영의 이해, 백산출판사, 1999, p.236, p.241참조

21)박진배, op. cit., p.57

<표 2> 경복궁과 호텔 공간디자인텍스트의 지시작용

영역 체계	공간 분류	컨텍스트적 디자인차원			
		원텍스트(Original Text)	텍스트(기본설계: Rifenberg & Rikrit Architects-Interiors Designers)		
출입구		근정문은 근정전 바로 앞 남쪽에 위치한 정전으로 드나드는 주출입구로서 문 좌우로 뻗은 행각은 근정전을 장방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근정전 행각은 북행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複廊형식으로 벽은 바깥쪽에만 있고 내부는 열주식으로 개방되어 있는 연결 통로이다.			호텔 내에서 장소와 장소를 이동하는 통로는 매우 중요하다. 공간을 이동할 때 연속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정확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다. 호텔로비는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기능상 몇 개의 부출입구가 요구되는데, 진행방향에 따른 로비입구는 내부동선의 원점이 된다. 로비에서는 근정문에서 남북방향으로 놓여진 행각과 동서방향의 응문루와 응무루의 이미지를 유추하여 각 방향의 입구에 적용하고 있다.
		근정전 동행각과 서행각에는 각각 행각 바깥쪽으로 돌출한 응문루와 응무루가 있다. 이는 文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武로써 亂을 막아내는 사람의 두 팔과 같다 는 뜻을 가진 누각으로, 동서 방향에서 근정전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된다.			
내조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왕이 신하들의 조하를 받거나 공식적인 대례를 거행하던 곳이다. 조선왕조의 위업을 상징하는 모든 궁궐 전각 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 건물의 내부공간은 상·하층의 주칸을 똑같이 하면서 알맞게 체감하도록 한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로비라운지는 비즈니스 환담 및 사교문화를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라운지의 높은 벽면에서 2층 건물의 위 아래층을 본 통층구조로서 조선조 최후의 대작인 근정전 내부의 공간적 특성을 기능과 형태에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월오악도는 天界, 地界, 生物界의 모든 신들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만대에 걸쳐 왕실과 나라가 번창할 것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임금이 앉는 응상의 뒤를 장식한다.			사우나는 업무에 의한 피로를 푸는 곳인 동시에 비즈니스 및 사교장소이기도 하다. 일월오악도와 근정전 어좌부분의 천정 이미지를 그 입구에 재현함으로써 고객을 왕과 같은 품격으로 대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사정전은 경복궁의 親事之所로서 임금이 평소 거처하는 편전이다. 외교 및 국방 등 정사를 보고 문신들과 함께 경전을 강론하며 종친대신들과 주연을 함께하기도 하는 곳으로, 만 가지 정사를 살피면서 임금이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서 육대주란 이 그룹의 호텔이 위치해있는 대륙의 수를 뜻한다. 간담회의로 적합한 라운지 스타일의 테마룸이며 독립적 사무공간으로 세계 어느 곳든 동시연결 가능한 회의 미팅룸이다.
경회루		경회루는 1867년에 완성된 회연 건물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외국의 사신을 위해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아래층에는 상층 연회장으로 오르는 나무계단이 양쪽으로 나 있으며,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마감되었다.			이 호텔의 대연회장은 2층에 위치한다. 2층 대연회장으로 연결된 양쪽의 에스컬레이터는 경회루의 상층 연회장으로 오르는 계단을, 그리고 병렬한 열주는 경회루의 아래층 돌기둥을 암시한다.
		경회루 상층은 공간의 경계부분에 들어얇게 분합문을 외진 내진·내내진 사이에 두어 공간 확장의 극대화를 꾀한 건축물로, 창호를 내리면 각각 닫힌 방이 되고 창호를 올리면 넓게 터진 마루가 펼쳐지는 구조이다. 가운데를 가장 높게 하여 임금이 앉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대연회장은 7.5m의 높이의 대규모 연회장으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서 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회루 상층과 유사한 가변적 공간개념이다. 또한 기둥과 벽체의 관계는 경회루 상층의 기둥과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연조		강녕전은 임금의 正寢이자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사적인 공간이다. 이 전각은 교태전과 함께 燕窩으로도 일컬어지며, 궁궐 깊숙이 입지함으로써 구중궁궐을 실감케 하는 곳이다. 강녕은 壽, 富, 康寧, 做好德, 考終命의 오복 가운데 세 번째로서 그 전체를 대표한다. 강녕전은 사정전 뒤쪽 향오문을 지나면 나타나는데, <궁궐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강녕전은 앞퇴가 열린 가운데 3간 안쪽 고주칸에 사분합이 있고 그 안이 대청이다. 대청의 동쪽을 동은울, 서쪽을 서은돌이라 한다.			객실의 침장 패턴과 창호의 형태, 그리고 현대적으로 단순하게 변형된 문인방과 대들보의 구조와 머들의 형태에 한국적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금은 내부가 빈 공간이지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배치되었을 전각의 의장기구, 즉 창, 각계수리, 경상 등 한국전통가구에서 비롯된 한국의 전통적 패턴을 가구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소로 강녕전 바로 뒤에 있다. 중앙 3간은 대청이고 좌우 2칸씩은 온돌방이며 공간은 뒷마루, 누, 방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답게 걸상을 나타내는 靑자문 창호 등 경복궁 전각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한국전통적 생활방식인 온돌형태의 스위트룸으로, 대청과 온돌의 전통공간구조를 거실과 침실에 대입하여 네 쪽 미서기둥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간 구성이다.

로 변환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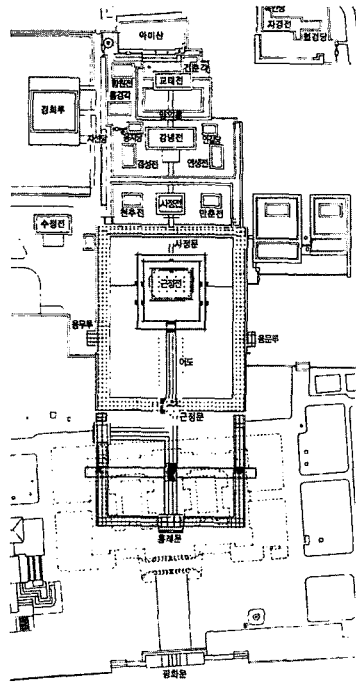
경복궁의 중심부배치는 광화문에서 향오문까지의 전조 구역과 향오문 뒤쪽의 후침 구역으로 요약된다. 경복궁은 ‘前朝後寢’, 즉 근정전을 중심으로 한 전면의 업무수행공간과 강녕전을 중심으로 한 후면의 침전공간이 궁궐배치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外朝’는 신하들이 집무하는 관청공간(광화문에서 근정문까지)이고, ‘內朝(治朝)’는 정전과 편전을 포함하는 공간(근정문에서 향오문까지의 근정전, 사정전 일곽)이며, ‘燕朝’는 임금과 왕비를 비롯한 왕실의 침전 및 생활공간(향오문 뒤의 강녕전, 교태전, 자경전 일곽)이다. 이는 ‘三門三朝’의 궁궐의 전형이다.²²⁾

I호텔은 서울 경복궁의 내조와 연조의 건축적 컨텍스트를 공간디자인 텍스트에 인용하고 있다.<표 2> 여기에서 호텔공간은 상징적 생활세계이며, 해석에 의해 이러한 공간언어의 상관자인 그 세계-궁궐과 그 안의 삶-를 다시 현존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을 매순간 일어나는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공간적 존재로서 그 안에서의 생활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즉 국제회의, 비즈니스, 연회, 숙박 등의 컨벤션 호텔의 기능을 물리적 시설로서가 아닌 궁궐에서 일어나는 행위구조에 그대로 삽입시키는 라이프스타일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창조로서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궁궐의 구조적 공간 속에서 내재적 요소들이 차지하는 위치들을 호텔이라는 구조 속으로 삽입, 재구성하는 것이다. 공간 구조적 관계에서 이들은 상응하고 유비적이다. 전체와 부분적 공간의 관계- 궁궐과 호텔의 관계, 근정문과 로비의 관계, 근정전·사정전 등 편전과 사교·비즈니스 공간의 관계, 연회장인 경회루와 볼룸의 관계, 강녕전·교태전 등 침전과 객실의 관계-에서 텍스트 체계와 공간 개념의 체계가 지시작용에 의해 寫像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은 곧 표상이 객관성에 의해 매개된 세계 내 존재를 드러내는 자기화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경복궁의 구조는 또 다시 창덕궁의 구조에 대응되는데, 근정전은 인정전에, 사정전은 선정전에, 강녕전은 회정당



<그림 1> 경복궁 중심부 배치도
(출처: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p.35)

에, 교태전은 대조전에 각각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호텔의 상응적 공간을 경복궁으로부터 추론하였으나, 경복궁과 창덕궁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디자인 텍스트와 원텍스트(Original Text)와의 관계를 포괄적인 서울의 궁궐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궁궐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상급의 건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조선시대 궁궐건축유구는 한국건축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기법이 내재되어 있어 더욱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²³⁾

<표 2>에서는 I호텔에서 대표적인 공간만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호텔은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컨벤셔널 호텔로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기치 아래 궁궐의 컨텍스트와 함께 한국전통공간의 보편적 요소 및 상징성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체 내부공간을 ‘한국성’이라는 맥락으로 디자인한 곳이다.

이러한 궁궐구조와 전통의 제 요소들 가운데서 적합한 것만 선택해서 결합하는 구조의 자율통제 기능에 의해, 그리고 궁궐이라는 다른 계의 상이한 구조적 고유법칙을 유지하면서 변환된 구조 자신이 다시 구조화되려는 내재적 변형에 의해, 구조의 내적 법칙은 공간구성 요소의 개별적 특성 이상의 전체적 특성을 호텔이라는 디자인텍스트에 부여함으로써 유형으로서 역사적으로 연계된다.

4. 결론

해석의 진정한 목적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있다. 전통공간의 포괄적이고 계보적인 이해, 그 시대와 오늘날의 차이에 대한 시대적 자리매김이 바탕을 이룰 때 전통공간디자인의 신뢰성과 해석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은 항상 주어진 문화 또는 개인의 기억 속에 보존되는 텍스트들의 체계이다.²⁴⁾ “역사학적 연구가 문화적으로 바뀔수록, 문화적 연구가 역사학적으로 바뀔수록 양측을 위하여 좋다.”²⁵⁾라고 린 헌트(L. Hunt)가 제안했듯이, 전통의 디자인은 역사적 사료와 함께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 끊임없이 자극되어 문화적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 텍스트들을 주체적으로 읽고 해석하여 컨텍스트화함으로써 전통을 자기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문화란 한 집단이 가치관의 동질성, 세계와의 상호 교류 등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유지되는 의미체계의 총체이므로

22)이덕수, 신궁궐기행, 대원사, 2004, p.56

23)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p.10, p.15

24)유리 M. 로트만, 문화기호학, 유계천 역, 문예출판사, 1998, p.119

25)린 헌트,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조한욱 역, 소나무, 1996, p.45

이와 관련된 의미작용은 특정 집단의 문화체계 안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전통공간디자인에 적용된 상사성과 변별성 및 등치와 대립은 궁극적으로 전통공간 컨텍스트의 구조적 유형에 의존하여 해석되므로, 이 때 컨텍스트는 텍스트 전언의 통로로 작용한다.

둘째, 전통디자인 텍스트는 전통의 정보를 보존하고 쇄신하는 '조직화된 의미체계'로서 연상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이 때 텍스트는 이미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하는 바탕의미체계인 컨텍스트와 관련된 지시작용에 의해 해석되므로, 지시작용은 텍스트의 의미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텍스트를 기획하는 텍스트의 지평을 형성하는 매체로 작용한다.

셋째, 전통공간디자인은 전통과 특정시대의 요청이라는 복합적인 관계체계 속에서 생성되는 유사텍스트이므로, 컨텍스트의 구조적 유비성에 의한 디자인은 정신적 개념과 물리적 구성을 유비적으로 지시하여 내적 삶이라는 행위구조 속에 표상을 삽입시킨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물리적 실체가 아닌 자기화 과정을 통한 디자인 방법론으로 유효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I호텔 공간디자인은 서울 궁궐의 컨텍스트를 유비적으로 지시함으로써 과거의 랑그가 현재의 말에 들어오는 효과를 유도하는 독자적인 표현체계로서, 그에 의해 공간의 의미작용은 명료화된다. 이는 특수한 심리와 지각의 재구성이라는 경로를 통해 인식의 겹을 만들어, 전통공간질서의 보편과 개별이 현재의 공간에 조화된 유동적인 삶의 세계로 재질서화된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다.

모든 텍스트는 자기 완결적이지 않고 해석에 열려 있으므로 컨텍스트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즉 어떤 컨텍스트도 텍스트의 의미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도 컨텍스트 바깥에서는 결정될 수 없다. 그러나 전통을 적용하는 수많은 논리 중 하나로서 이러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지식과 삶의 전제에서만 의미가 온전히 해석된다는 한계를 또한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에서는 전통의 현대화라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성과 보편성'의 난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디자인방법론 제안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 본다.

전통공간디자인의 창조적 행위는 역사적 보고에서 영감의 원천을 이끌어 내는 논리, 상상력, 성찰인 것이다. 디자인에 관한 기본개념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언어- 문화, 상황, 집단 심성, 담론 및 상징 등의 키워드-를 정립하여 디자인의 공간·시각텍스트로 전환하는 것, 그리하여 사용자에게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디자인 철학이며 디자인 경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문학과 타학문과의 학제연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공

간문화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인문학과 하나의 학제적 논리를 제시한다는 측면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김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1998
2.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3. 김재민, 신호텔경영론, 대왕사, 2005
4.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1989
5. 박진배, 호텔경영과 디자인 필레트, 도서출판국제, 2003
6. 서울포럼, 아름다운 서울, 서울포럼, 1991
7. 신영훈, 한국의 고궁, 한옥문화, 2005
8.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2002
9. 이강근, 한국의 궁궐, 대원사, 1999
10. 이덕수, 신궁궐기행, 대원사, 2004
11. 이상해, 궁궐·유교건축, 솔, 2004
12. 이정우, 사진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13. 임영찬, 호텔경영의 이해, 백산출판사, 1999
14.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15. 한국해석학회, 문화와 해석학, 철학과 현실사, 2000
16. Claire J Kramsch, Sally McConnell-Ginet, Text and context :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s on language study, Lexington, Mass. : D.C, 1992
17. David Wood, On Paul Ricoeur : narrative and interpretation,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91
18. Georgia Warnke,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87
19. Hugh J. Silverman, Gadamer and Hermeneutics, Routledge, New York, 1991
20. Merleau 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lated by Colin Smith, Routledge, London ; New York, 2003
21. Michael Toolan, Language, text and context : essays in stylistics, Routledge, London, 1992
22. Paul Ricoeur, Richard Kearney, The Hermeneutics of Action. Sage Publications, London, 1996
23. Paul Ricoeur, From Text to Action. translated by Kathleen Blamey and John B. Thomps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1991
24. Teun Adrianus van Dijk. Text and context :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London ; Longman, 1977
25. 린 헌트,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조한욱 역, 소나무, 1996
26. 유리 M. 로트만, 문화기호학, 유채천 역, 문예출판사, 1998
27. 장 피아제, 구조주의 이론, 김태수 역, 인간사랑, 1990
28.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29. 폴 리쾨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남기영 편역, 아카넷, 2004
30. 이미애, 컨텍츄얼리즘적 접근방법에 의한 한국적 공간조형의 실험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31. 박경애, 텍스트해석학적 관점에서 한국전통공간의 유형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4호, 통권57호, 2006. 8

<접수 : 2007. 7. 2>